

찬란한 반역의 계절

● 김형배

*김형배님은 1972년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973년 10월 2일 유신반대 첫 시위에 참가, 수배당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1978년 조선일보에 입사, 사회부, 편집부에 근무하던 중 1980년 5월항쟁 관련 검열 및 제작거부 참여, 조선일보사에서 해직되었다. 1987년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 한겨레 민권사회부 기자, 여론매체부장, 생활과학부장, 민족극제부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70년대 그 엄혹했던 시절 서울 문리대를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 세대가 겪어야 했던 그 특별한 계기들과 극복의 궤적들을 남기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경험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세대 의식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우리 후배나 동시대인에게도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시절 특색없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자라온 나는 문리대를 들어가면서 크게 달라지고 말았다. 고3 때 담임한테서 너는 성적이 되니 법대를 가도 좋다는 권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대학이란 그저 그런 곳이어서 공부나 열심히 해 좋은 성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출세나 하면 된다는 것이 대학에 대한 나의 좁고 유치한 인식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런 천박한 인식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여지없이 깨졌다. 문리대와 사대 학생들이 참가한 1학년 과정인 교양과정부라는 곳은 언뜻 보면 고등학교 수준을 넘지 못한 듯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곳에서 전국에서 모인 정말 결이 고운 친구들을 만나 서로간의 살아온 삶의 족적들을 나누게 된 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그 영향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자주 벌어지곤 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양사학과 교아석이었다. 어느 날 등교 길에서 목격한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다국적 자본 코카콜라를 거부하자’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그는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1인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학생들이 몰려들자

학생과 직원들이 나서 피켓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기억은 내가 졸업한 지 26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다.

또 하나의 뚜렷한 기억은 한 여학생의 대담한 옷차림과 함께 연상된다. 국문과 여학생으로 기억되는데, 그가 당시 서울대생으로선 상상도 못할 핫팬츠 차림으로 대담하게 교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구름같이 물려든 학생들 사이를 그녀는 당당하게 ‘싸돌아’ 다녔다.

이들의 대담성은 한껏 위축돼 있던 내 사고의 틀과 행동의 한계를 사정없이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 단 두 가지 체험으로 나는 대학이 단순히 학제나 교수진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진부한 진리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연구회’라는 서클이 내게 남긴 실천적 단련을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 공부 외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공부는 큰 수확이어서 지금도 내 판단의 준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삶을 바꾸게 한 1년

대학 입학 후 첫 가을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른바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를 겪었다. 유신이라는 이름의 이 사기극으로 시작된 끝도 없을 것 같던 정치권력의 비열한 행위들은 오히려 우리 학번을 강하게 단련시킨 셈이었지만...

72년 10월 17일, 그 날은 서울대 개교기념일이었다. 그 날 서울대 전체 체육대회를 열기로 돼 있었다. 운동을 좋아하고, 또 내가 속해 있던 학내 최강의 교양과정부 야구팀은 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 의식을 무산시킨 엉터리 정변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72학번의 원초적 정치의식화 가운데 가장 밑바닥 토양을 형성하는 데 적지않은 기여를 했다.

우리는 나서야 했다. 조목조목 박정권의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단단해져 갔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즈음 2학년을 맞게 된다.

문리대의 지적 분위기는 과연 매혹적인 것이었다. 나는 대학신문 기사를 하기 시작했고, 야구팀 창단을 한다며 매일 운동도 했다. 대학과 사회를 속속들이 알고픈 마음에 발을 들여 놓은 학생기자 경험과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의 단련 또한 내게는 삶의 내용을 풍요롭게 채우려는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자부한다. 일반 종합신문이 사회의 거울이고 목탁이라면, 대학언론은 지성의 향도가 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학가 만보’라는 칼럼의 연재였다. 유신 이후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진 대학에 자극을 주기 위해 기획된 이 집단 집필기획 중 내가 맡은 부분은 문리대와 법대였다. 문리대는 ‘무성격의 대학’으로, 법대는 ‘국립고시원’으로 그려졌다. 반발도 엄청났지만 기획은 그런 대로 대성공이었다. 반박과 재반박문이 실리면서 학우들의 반항을 부른 대학의 정의 논쟁이 불붙도록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마음의 한 구석은 늘 허전했다. 이 더러운 시대와 세

력이 권력놀음을 위해 저지른 죄악과 불의는 우리를 삼킬 기세였다. 이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비겁한 우리들은 양심의 '집단 상흔'같은 것을 았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마치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유신은 아름다운 허울을 쓰고 그대로 굳어져 영원히 우리 역사와 민중을 압살할 것같았다는 게 당시 우리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그 분출은 '10월 2일 데모'로 뜨겁고 거침없이 나타났다.

10월유신 이후 최초의 학생 데모 실행을 위해 선배와 동료 학우들이 기울인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학생들은 서클간의 가을학술대회 개최를 핑계로 방학 동안에도 귀향하지 않고 학교 주변을 맴돌았다. 사실 정치화 학습은 그때가 가장 치열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은 엄혹한 정치상황에서 그나마 한국의 군사독재를 전 세계로 이슈화할 계기로 유엔총회 개최 시기를 잡았다. 그리고 첫 번째 D 데이는 9월 25일. 그러나 시위 조짐이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포착됨으로써 자칫 큰 차질을 빚을 뻔했다.

학내에는 정보형사들이 대거 배치되어 학생들의 동향을 일일이 감시해대는 것이었다. 감시를 피해 주로 모인 곳은 선배들의 하숙집이었다. 지금은 여론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부근 선배의 당시 하숙집이 아지트였다. 안부근, 이철, 유인태, 강구철, 나병식, 강영원, 고아석 등의 모임은 보안이 잘 지켜져 시위날까지 온전할 수 있었다.

10월 2일 오전 11시, 우리들은 일제히 강의실을 빠져 나와 4

월혁명탑 앞에 모이기 시작했고, 대오는 곧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비록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지켜보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를 보호했다.

학생들은 문리대 교정을 두어 바퀴 돈 뒤 곧바로 구름다리를 건너 법대로 향했다. ‘무성격의 대학’이 봉기해 ‘국립고시원’을 점령한 셈이었다.

이 날 문리대생들의 시위는 4일 법대, 5일 상대의 시위와 동맹휴학을 유발한 원동력이었고, 지금은 70년대 운동의 시발점으로 역사 앞에 올바른 정치 노선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자부한다.

스크림을 찢던 맨 앞줄에는 학생회장 도종수(71학번) 형과 지금은 고인이 된 강구철과 내가 있었다. 테모는 4학년이 모의하고 3학년은 조직, 2학년은 동원을 맡았고, 특히 앞줄은 공개 지도 부를 보호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2시간 여 동안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적지않은 학우들이 합류해 크게 불어난 이 날 시위는 이 땅에 반유신의 봉화를 처음으로 올렸던 역사적 계기가 됐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당시 한심석 총장의 애교심 타령을 강구철이 박살냈던 통쾌한 장면이었다.

그 당시 우리에게 ‘한심한 총장’으로 애칭되었던 총장님께서 우리의 대오 앞에서 일갈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무슨 위험한 행동인가. 학생들의 애교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자 우리의 강구철이 바로 되받아쳤다.

“총장님! 이 무슨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십니까! 애교심이



▲ 1970년대의 서울 문리대 시위 모습

애국심보다 더 소중한니까?”

문리대 데모는 결국 학내 진입 기동경찰들에 의해 시위대 전원 연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결말을 맺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연행사태 앞에서 학생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흩어지지도 않았고, 스스로 스크럼도 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경찰은 우리 대오를 부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이 날 문리대 데모는 한국의 매체에는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학우들의 구속 사태를 동아일보가 유일하게 옛새만에 간략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김성환 화백이 만화로 이 사실을 알리려고 저항했을 정도였다. ‘절대 금기’는 그렇게 문힐 뻔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으로, 또한 세계로 그 파장은 널리 퍼져나갔다. 침체에 빠졌던 사회운동 세력에 힘을 불어넣었을 뿐 아

나라 국외 민주화 세력에게도 커다란 자극이 됐다.

유신은 우리 봉기에 의해 이미 정당성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무수한 긴급조치는 무너져 내리는 정당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안타까운 발버둥이었다. 이 정권은 긴급조치를 남발하다가 결국 스스로 고꾸라지고 말았지 않았는가? 불가능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시작이 어렵지 시간 문제인 것이다. 특히 언론민주화 운동에는 기폭제 구실을 단단히 해냈다.

구호는 ‘자유민주주의 확립하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중앙정보부 해체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 4가지였고, 이들 구호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던지는 정치적 이정표 구실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그 해 겨울 재야 사회운동세력을 망라한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 본부가 꾸려지고, 각 신문사 기자들이 잇따라 언론자유 수호와 실천운동을 벌이는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유신철폐 첫 시위기사 보도를 막으려는 시주측과 싸움을 벌여 늦게나마 시위자 대량 구속 사태를 알렸다.

12월 7일 박정권은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징계를 백지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위가 이어진 것은 70년대 중후반 거센 민주화 시위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73년 가을의 삽화들

삽화 하나 — 나병식 형 이야기. 나는 이 날 연행을 피해 송인동에 있는 형 친구의 하숙집을 시작으로 두 달 열흘의 피신생활에 나섰다. 수배 첫날 청계천 7가 길거리에서 나병식 형을 만난 나는 대량 구속사태를 두고 선배들에게 불평을 했던 기억이 있다. 도대체 후배들이 대량 구속되는 사태가 되도록 한 선배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철없는 항변에 묵묵부답하던 병식 형의 당황한 모습을 떠올릴 때 지금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다.

삽화 둘 — 내 고교 동창 녀석 이야기. 수배가 시작되고 화곡동의 우리 집에는 곧 동대문경찰서와 서울시경 소속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시위 열흘 전 집을 나선 아들의 ‘비장한 작별’을 들으신 어머니는 “시국이 이상한데 혹시 데모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냐”는 말씀을 던져 가슴을 뜨끔하게 하셨다. 눈치 빠르신 어머니는 내 고교 동기생 백이근에게 “나는 잘 모르니, 네가 문제가 될 만한 책을 모두 치워 달라”고 하셨다. 이 친구, 우리 집에 있는 내 책 가운데 제목으로 ‘혁명’이나 ‘역사’ ‘사회주의’는 물론 ‘사회학’이란 글자가 새겨진 대학 전공 교재까지 모조리 없앤 대단한 친구였다. 나중에 그가 내 힐난을 들었음은 물론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살벌했던 그 시절에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

삽화 셋 — 수배 당일 나는 행당동에 있는 누나 집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나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북한방송을 들었다. 우리들의 시위기사를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피신 지침에 따라 이동은 주로 통행금지 해제시각인 새벽 4시 직전에 이뤄졌다. 아니나 다를까, 형사들은 내 여동생을 앞장 세워 누나 집으로 들이닥쳤다. 다른 대학에 배포할 선언문 수백장을 지니고 있던 나는 간신히 체포를 피해 다음 장소로 몸을 옮겼다. 누나와 형이 마련해준 돈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했던 내게 형의 친구들은 쾌히 자신의 하숙집 잠자리를 내줬다.

그때 느낀 것인데, 서울 출신인 나도 몰랐던 이곳 인심은 참으로 고약했다. 웬만한 하숙집에서는 여벌 밥을 주는 법이 없었다. 하숙생이 한 술 뜨고 나면 나머지는 내 차지였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밥을 염치없이 먹어치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난한 대학생들이었지만 이렇게 가슴은 참으로 따듯했던 시절이었다. 지금도 그 시절이 그립다.

삼화 넷 — ROTC 입단과 3, 4학년에 관한 기억은 별로 없다. 내가 별로 밝힌 적이 없어 이 사실을 아는 친구도 없지만, 나는 가족의 일방적인 원서 제출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학군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 시절 또 하나의 체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학군단은 입단자가 입단을 취소하는 순간 입대하게 돼 있다. 군에 갈까, 아니면 공부나 할까 하고 망설일 바로 그 때, 아마 3월 말쯤 됐을까. 나는 결국 친구들이 고민하고 내가 가고 싶어 하던 그 길, 민주화와 인간화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되돌아오게 된다.

4월 3일, 전국 봉기를 앞두고 내가 찾은 곳은 종로 서울예식장 앞의 '중앙지도사'였다. 그곳에서 문리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가와 청계천의 노동자 거리를 자세히 밝힌 2천분의 1 지도를 구

입한 것이다. 이 지도는 시위계획을 짜는 데 요긴했다.

순진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우리 눈에는 대학과 청계천 일대가 곧 해방구가 될 것이었다. 각 대학별로 해방시킨 구역들이 서로 연결될 것이고, 우리는 서울 한 복판에서 유신을 끝장낼 것이었다. 광화문의 시민들은 우리를 반겨 대오는 더욱 커질 것이며, 유신세력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었다. 그러려면 무장을 해야겠으니 구내에 쌓아둔 책 걸상을 빼개어 각목을 만드는 일은 당연히 내 차지가 됐다.

그러나 웬일로 문리대 시위는 주도세력이 사전에 일망타진되고 일부 살아남은 주동자들마저 거사 전에 모두 검거되는 바람에 불발하고 말았다. 이해찬은 뼈라를 뿌렸고 학우들은 구호를 외치다 속속 검거됐다. 그 순간 속수무책이었던 내 눈 앞에 73학번 박용훈이 잡혀가기 일보 직전의 장면이 비쳤다. 그때 내가 든 것은 각목이었고, 그를 붙잡으려던 형사들은 이 각목에 속절없이 고꾸라졌다.

그때 옆에 있던 중문학과 의 문형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형배야 피해! 어서.”

동시에 형사들도 소리쳤다.

“흰 잠바, 저놈 잡아라!”

나는 그때 교복 위에 하얀 대학신문 점퍼를 덧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도 나는 잡히지 않았다. 본관까지 내달렸던 내가 찾은 곳은 심리학과 사무실. 그곳에서 삼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태연히 되돌아 나왔다. 쫓아왔던 형사들은 놀랍게도 복도에서 마주친 나를 못 알아보았다. 사회학과 선배 이재호 형(당시 대학원

생)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교정을 유유히 뚫다.

나는 4월 8일 마지막 날 자수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활은 내게는 길고도 외로운 암흑기간이었다.